

국립공원 관리공단, 무등산 오토캠핑장 설치 계획 논란

“친환경 개발이나” “환경 훼손이나”

관리공단, 광주 윤림동 동적골 부근 추진 검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무등산에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을 설치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연환경 훼손이나 아니면 친환경 개발이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31일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에 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무등산에 자동차 야영장(6000㎡·1815평) 2곳 등 휴양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보에 게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동차 야영장을 설치하려는 부지는 광주시 동구 윤림동(806번지 일대)으로, 동적골 톨립 꽃동산 부근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이 지난해 3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탐방로 자연조사 결과와 탐방객 필수시설 등을 감안, 자동차 야영장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분별한 야영객 수 증가를 막고 건전한 야영 문화와 자연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저지대에 자동차 야영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 지역 국립공원들도 자동차 야영장을 조성·운영하는 추세라는 게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의 설명이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중 지리산 국립공원·설악산 국립공원·지악산 국립공원 등 14개 국립공원은 자동차 야영장을 조성한

뒤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탐방객들 사이에선 광주시가 자연환경 훼손을 막는다며 중심사지구 음식점들을 이주시킨 마당에 “자동차 야영장이 왜 말이나”라며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중심사지구 환경복원사업(예산 742억원) 일환으로 건물주나 영업주 등을 이주단지(68필지)와 상가단지(40필지)를 조성한 뒤 집단 이주시켰었다.

특히 무등산이 국립공원 승격 이후 탐방로 훼손(33곳 19.08km)이 심해지고 꼬막재와 늦게 악수터가 한때 폐쇄되는 등 국립공원 시절보다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동차 야영장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 자연환경 훼손만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비공식적 의견임을 전제로)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데다, 자연자원조사도 최근 끝마친 상태”라며 “휴양 및 편의시설(자동차 야영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없지만 탐방객 편의시설이 부족한 만큼 필요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2년 12월 26일 국립공원인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확정했으며 무등산은 지난해 3월 4일 관보 고시와 함께 공식 국립공원이 됐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서서 공부하는 고3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일 앞둔 4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상일여고 3학년생들이 쏟아지는 졸음을 쫓기 위해 교실현관에 서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찰청, ‘유병언 제보 목살’ 순천경찰 감찰 착수

경찰관 3명 ‘별장 비밀공간 가능성’ 시민 제보 받아

경찰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은신했던 순천 송치재 별장 내 ‘비밀공간’ 제보를 목살했다는 지적과 관련, 순천경찰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4일 “순천경찰이 시민의 유병언 제보 전화를 받고도 합당한 조치를 하

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 정보과 경찰관 3명과 수사과 경찰관 1명이 각각 제보자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4명 중 한 명은 송치재 별장과 관련 없이 “검문 검색을 철저히 해 달라”는 전화

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별장의 은신처 관련 제보를 목살한 경찰관은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순천에 거주하는 A(59)씨는 “TV에서 ‘검찰이 유씨 은신처를 급습했으나 놓쳤다’는 뉴스를 보고 순천서와 인선지검에 전화를 걸어 비밀공간의 존재 가능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순천

서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J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A씨가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통해 순천서와 통화한 사실을 제시하자 경찰은 뒤늦게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투입해 해당 경찰관들을 격리한 상태로 A씨와 전화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4 해질 19:32
 일출 14:09 일몰 00:05

호리고 한때 소나기
 아침부터 구름많고 내륙 일부 지역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었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23/31	보성	구름많음	23/30
목포	맑음	23/29	순천	구름많음	24/31
여수	구름많음	24/29	영광	구름많음	23/32
나주	구름많음	22/32	진도	구름많음	23/29
완도	구름많음	23/30	전주	구름많음	24/32
구례	비	23/31	군산	구름많음	24/30
강진	구름많음	23/30	남원	구름많음	23/31
해남	구름많음	23/30	축산도	맑음	23/27
장성	구름많음	22/3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남서	0.5	남~남서	0.5
남해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남~남서	0.5~1.0	남~남서	0.5
서부	남~서	0.5~1.5	남~서	0.5~1.5

◇생활지수

식중독	53
운동	10
빨래	20

◇주간 날씨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12(화)
☀	☀	☀	☁	☁	☀	☀
24/32	24/31	24/32	24/30	25/30	24/30	23/31

주말 중형 태풍 ‘할롱’ 온다

주택·농경지 침수 대비해야

광주·전남에 인명피해와 주택·농경지 침수 등 피해를 줬던 제10호 태풍 ‘나크리’(NAKRI)가 서해상에서 소멸된 후 오는 주말에는 규모와 강도 면에서 올 들어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 제11호 태풍 ‘할롱’(HALONG)이 북상하고 있어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4일 오후 3시 현재 태풍 할롱이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 쪽 1070km 부근 해상에서 최대풍속 초당 51m(시간당 184km)로 북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롱은 강풍 반경 430km로 강도가 매우 큰 중형 태풍이다.

5일 광주·전남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서해상

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았다. 최저기온은 22~24도, 최고기온은 29~32도로 높겠다.

구례 등 일부 내륙지역에는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주중 기온은 평년(21~32도)과 비슷하겠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낀 날이 많겠다.

주말에는 태풍 할롱이 제주도와 일본 사이로 북상해 광주·전남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주말에는 태풍 할롱이 진로에 따라 광주·전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상예보에 주의를 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고시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5580원으로 고시했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4640원이며, 월급(209시간)으로는 116만 6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000

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4일 고용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고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위반하면 바로 사법 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중알가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